

## 하이패션에 나타난 고딕 시크

임 은 혁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부교수

### Gothic Chic in High Fashion

Eun-Hyuk Y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투고일: 2012. 8. 20, 심사(수정)일: 2012. 11. 2, 게재확정일: 2012. 12. 30)

#### ABSTRACT

As style is the center of subcultural identity and the clothes and adornments are the most visible symbol of its membership, the style of Goth symbolizes the strong subcultural identity and acts as the practical basis to demonstrate commitment to the subculture. In the turn of the third millennium, fashion designers have drawn upon and extracted elements from many subcultures to use in their collections. High fashion designers have introduced the Goth style since its inception in the 1980s. The energy and authenticity of Goth has been considered to be desirable in high fashion. The aesthetic property of Goth subcultural style defeats the established notion of standardized fashion and stimulates new consciousness, which makes room for diversification and subdivision. This study attempts to forecast the trends of the 21st century via researching the diffusion of Goth style in high fash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esthetics and styles of Gothic chic, along with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ashion collections from the late 1990s to 2000s as well as the images of street fashion magazines.

Key words: Gothic chic(고딕 시크), Goth subculture(고스 하위문화), Memento mori(메멘토 모리), Sexual fetish(성적 페티시), Vampirism(뱀파이어리즘)

## I. 서론

하위문화 집단이 등장하고 그 스타일이 표면화된 이래로 사회, 문화, 예술 뿐 아니라 패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류패션에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최근 하위문화 스타일과 하이패션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있으며, 하위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의류시장이 부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패션계에서 고스(Goth) 스타일은 고딕(Gothic) 이미지의 영속적인 영향력으로 끊임없이 부활되고 있다. 테드 폴레머스(Ted Polemus)<sup>1)</sup>가 하위문화 중에서도 놀라운 지속성을 가졌다고 언급한 고스 하위문화는 하이패션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이다. 라이언 길비(Ryan Gilbey)<sup>2)</sup>는 대중문화에서 고딕적이고 죽음을 암시하는 주제가 증가하는 움직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보수적인 사회는 암울함과 모호성은 근절되었다고 선전하지만 사회질서가 더욱 세련되고 문명화될수록 불안하고 파괴적인 암류가 만연한다고 지적하면서, 질서에 대한 사회문화적 욕망은 그에 상충하는 감정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18세기 고딕 공포문학에서부터 최근의 뱀파이어 소설이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고딕은 공포와 섬뜩한 에로티시즘을 포용해왔으며, 패션은 표현 매체로서 고딕 이미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고스 하위문화가 가장 인기를 끌었던 시기는 1980년대 초중반이지만 고스 하위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1990년대 후반 다시 등장하여 고딕의 죽음, 쇠락, 공포, 에로틱의 이미지는 많은 하이패션의 디자이너와 스타일리스트에게 영감을 제공하였다. 최근에는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 릭 오웬스(Rick Owens), 올리비에 테이스켄스(Oliver Theyskens),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등의 디자이너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작업에 고딕을 결부시켰다. 라거펠트는 일본의

고딕 롤리타(Gothic Lolita)에서 영감을 얻은 샤넬(Chanel) Paris Tokyo 2004-5 Made in Paris 컬렉션에서 고딕 미학을 섬세하게 표현하였고, 2007년 F/W 파리 컬렉션에서 갈리아노는 어둡고도 로맨틱한 미학과 퇴폐적인 분위기를 재현하였다. 사진작가 션 엘리스(Sean Ellis)와 스타일리스트 이사벨라 블로우(Isabella Blow)는 1990년대 중반 알렉산더 맥퀸과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의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고딕의 부활을 예고하는 화보들을 제작한 바 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뉴욕의 The Museum at the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는 “Gothic: Dark glamour”<sup>3)</sup>라는 제목으로 고딕 패션에 관한 전시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하이패션에서 고딕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면서 패션에서의 고딕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로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sup>4)</sup>, 국내 패션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sup>5)</sup>, 고스 이미지의 미적 특성<sup>6)</sup> 및 오픈 고스(haute Goth) 패션<sup>7)</sup>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패션 컬렉션 뿐 아니라 고스 스타일의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패션 화보에 나타난 이미지도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고딕 패션이 하위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하위문화의 상향전파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주류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하위문화 스타일의 영향과 그 표현 양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고스를 그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하여 스트리트 스타일의 중심적인 매체인 패션지에 나타난 화보와 관련 컬렉션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고스 하위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위문화 스타일의 상향전파 현상 및 주류 문화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을 고찰하는 것이며, 둘째, 다른 하위문화에 비해 오랜 지속성을 유지한 고스 하위문화가 하이패션에 미친 영향과 그

대표적인 조형적 특징과 미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하이패션에서 고딕 시크(Gothic chic)의 부활이 이루어진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 2012년 컬렉션까지이며, 연구방법으로는 하위문화스타일과 고스 하위문화의 개념을 고찰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행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의 고스 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해 패션관련서적, 컬렉션지, 그리고 The Face, Dazed & Confused, i-D, Wallpaper 등의 스트리트 패션잡지에 나타난 이미지에 대한 내용분석을 병행하였다.

## II. 고스 스타일

고딕은 죽음, 파괴, 타락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이다. 이는 단순히 고딕 성당과 같은 사물을 지칭할 뿐 아니라, 어둡고, 야만적이고, 음침하며, 무시무시함을 암시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고딕의 부정적인 의미는 저항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청년 하위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sup>8)</sup> 오늘날 ‘고스’와 ‘고딕’이란 단어는 종종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니는 청소년들과 화장을 한 록 뮤지션들을 연상하게 하나, 고딕은 그 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본 장에서는 고스 하위문화에 대해 고찰한 후, 하위문화의 상향전과 과정과 주류 문화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고스 하위문화(Goth subculture)

‘고딕’은 A.D. 5세기 로마 문명을 몰락시켰던 북유럽 민족들을 칭하는 표현으로 등장하였는데, 문명화된 로마를 침략한 것은 매우 미개하고 잔인한 행위로 간주되어 ‘고딕’은 후에 ‘야만적’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유럽에는 높은 천장과 뾰족한 아치, 과장된 각도와 형태, 괴물모양의 흠통주둥이, 길고 뾰뻑한 인물형상 등을 특징으로 하는 거대한 성당들이 세워졌는데, 이 시기의 건축 양식은 고전시대에 대한

관심이 부활하는 르네상스 시대에 그리스-로마식을 따르지 않는 구조이며 고전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고딕’으로 묘사되었다.<sup>9)</sup>

18세기 후반 고딕소설의 등장과 함께 고딕의 의미는 또다시 변화를 겪는다. 호레이스 월폴(Horace Walpole)의 1764년 소설 오토란토의 성(The Castle of Otranto)의 출간과 함께 창시된 장르인 18세기 후반의 고딕 소설을 통해 고딕이라는 용어의 가장 모던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고딕 소설은 묘지, 폐허가 된 성과 교회, 유명, 뱀파이어, 악몽, 저주받은 가문, 생매장, 멜로 드라마적 줄거리와 같은 공포영화와 공포문학의 도상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고딕은 공포, 죽음, 암흑, 그리고 초자연성의 분위기와 연관되어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고딕의 아이콘은 브람 스토커(Bram Stoker)의 소설에서 처음으로 묘사된 뱀파이어인 드라큘라(Dracula)이며 이는 공포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더욱 유명해졌다.

하위문화로서의 고스의 이미지와 문화적 성향은 고딕문학과 공포영화로부터의 영향을 받았다. 고스 하위문화는 1980년대 초 영국의 고딕 록(Gothic rock) 현장에서 포스트펑크(post-punk) 장르의 분파(分派)로서 시작되었다. 1982년 런던에 전설적인 클럽 ‘Batcave’가 문을 열었을 때 언론에서는 새롭게 형성되는 포스트펑크 하위문화를 고딕 록이라 일컬었다. 바우하우스(Bauhaus)와 같은 포스트펑크 밴드들은 검정색 의복을 입은 고스의 이미지를 대중화시켰고 이는 이후 30여 년간 주류 패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음악과 그 추종자를 묘사하는 형용사로서의 고딕의 사용은 고스라는 용어로 이어졌다. 이와 같이 ‘고딕’이라는 용어는 야만적이라는 뜻에서 시작하여 중세 건축 양식, 그리고 공포소설에 이르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용어이나, 본 연구에서는 주류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문화적인 의미로 한정하여 18세기 후반 고딕문학의 주제였던 공포, 죽음, 암흑, 신비의 이미지와 이러한 맥락에

서 탄생된 고스 하위문화의 주제로서의 고딕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하위문화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독특함과 내부적인 일관성을 내포하는 일련의 취향과 규범을 수반해야한다. 고스의 공유된 취향과 규범은 시각적인 스타일에서 잘 드러난다. 히피나 펑크와 다르게 고스 하위문화는 뚜렷한 정치적 메시지나 이데올로기 보다는 미적인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고스는 글램, 펑크, 뉴웨이브 등의 이전의 하위문화의 낭만적인 요소들을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브리콜라주(bricolage)하였다. 또한 고스는 뱀파이어, 공포영화, B급 영화 등 고딕 문학과 역사적인 전통에서 요소를 자유롭게 발췌하였다.<sup>10)</sup> 고스는 또한 페티시즘에 대한 펑크의 관심을 드레시하고 화려한 스타일로 해석하였다. 번쩍이는 검정색의 PVC로 된 빅토리안 코르셋, 싸구려 피쉬넷 스타킹, 상복(喪服)의 베일 등으로 고스 스타일은 의도적인 혼성모방을 보여주었다. 가죽도 인기가 있었지만 벨벳과 레이스 등 여성적인 소재도 애용하였다. 애호하는 신발은 펑크적인 닥터 마틴(Doc Marten) 부츠에서 스파이크 힐이나 빅토리안 스타일의 레이스업 부츠까지 광범위했다. 펑크 스타일이 남성성을 강조했다면 고스는 점차 메이크업과 남성의 스커트 착용 등 양성적인 스타일로 발전해갔다.<sup>11)</sup>

고딕 미학은 종종 ‘어두운(dark)’, ‘신비로운(mysterious)’, ‘죽음을 주제로 하는(macabre)’<sup>12)</sup> 등의 단어로 묘사된다. 전반적으로 어두운 공포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고스 스타일의 특징으로는 검정색으로 염색한 긴 머리, 진하고 어두운 눈 화장, 하얗게 화장한 얼굴, 그리고 십자가, 두개골, 박쥐형상의 은 장신구의 착용 등이 있다. 또한 머리카락을 검정색, 흰색, 빨간색 또는 자주색으로 염색하여 뒤로 빗어 넘기거나 거꾸로 빗어 세우거나 또는 웨이브나 스파이크 모양으로 가꾸기도 한다. 고스들은 선글래스, 톱 햇(top hat), 케이프, 코르셋, 크라바트, 말채찍 등을 장신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타투, 바디 페인팅, 피어싱, 보라색 콘택트렌즈, 송곳니 또는 장식적인 흉터를 즐겨 한다. 고스들은 흰색 얼굴에 마스크라와 아이라이너를 하는 메이크업을 즐기며, 가부키 스타일의 화장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고스는 이데올로기적 모순에 대한 해결책으로 스타일을 사용하는 스펙타클한 하위문화인 동시에 코르셋에서 어두운 색의 립스틱에 이르는 가지각색의 도구의 표현성을 이용하는 소비주의적이고 상품 중심적인 하위문화이다.<sup>13)</sup> 따라서 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위문화와 시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위문화가 근본적으로 주류소비문화에 대립한다든가 저항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하위문화 이론가들이 거듭 반론을 제기해왔다. 이를테면 안젤라 매크로비(Angela McRobbie)<sup>14)</sup>는 구제 의류 판매 등 하위문화들의 버팀목이 되는 경제활동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폴 핫킨슨(Paul Hodkinson)<sup>15)</sup>은 음반이나 의류, 화장품, 장신구 등을 파는 다양한 상거래 활동 속에 이미 고스 하위문화가 침투해 있다고 말한다. 즉, 하위문화의 특성에는 주류 소비문화의 메커니즘이 내재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후기 자본주의는 상품화를 넘어서는 아우라에 대한 욕망을 만들어냈고, 고스는 그러한 욕망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영속성을 가지게 되었다.<sup>16)</sup> 고스는 도시의 번두리, 교외, 캠퍼스와 사이버공간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성에 대한 구속을 무시하고, 일상적인 소재에 저항적 스타일의 매력을 불어넣고 있다.

## 2. 하위문화 스타일의 상향전파

하위문화의 정의는 그 용어가 1940년대에 생긴 이후 변화하여, “다른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과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구분 짓는 공통점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sup>17)</sup>이라는 가장 폭 넓고 기본적인 정의로 조정되었다. 하위문화로 연구되는 집단들

은 종종 이탈적이거나 저하된 위치로 간주되며, 종종 계급, 연령, 인종의 수직적 사회구조에서 열등한 위치로 인식된다.

모(母)문화는 상대적으로 권력을 소유하는 계층으로서 지배적 사회문화질서를 이끌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화로 묘사된다. 따라서 하위문화는 주류문화로부터 주변화 되고 지배적인 가치와 윤리로부터 배격된 문화이며, 넓은 의미에서 동시대의 지배적 문화적 형태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로 이해된다. 한편 하위문화 내부적 시각에서 하위문화는 주류문화를 능동적으로 거부하고 지배적 가치 및 윤리를 배척하는 문화이다.<sup>18)</sup>

하위문화 스타일은 주류문화와는 이질적인 속성을 드러내며 그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은 서로 비슷한 외양을 취하게 된다. 하위문화 구성원들의 스타일이 개인적 차이를 강조할지라도 외부인의 시각에서는 그 스타일들이 모두 비슷하게 보인다. 따라서 하위문화집단은 “어느 정도 공유되는 경험의 영역을 가지며 일반인들과는 차별성을 드러내는 스타일을 점유한 집단”<sup>19)</sup>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스타일이 하위문화 정체성의 중심이라 할 때, 의복과 신체 장식은 멤버십에 대한 가시적 상징이며 소속된 집단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자 주류문화로부터의 거리두기라 할 수 있다.

하위문화는 모문화로부터 대상을 택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집단생활과 세대 경험의 특징적인 상황에 맞게 변형한다. 이렇게 생산된 스타일은 각각의 요소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하위문화는 집단적 자아의식을 구현하고 표현하는 모든 요소들을 조합하여 특정한 상징적인 의미를 도출해낸다. 즉, 하위문화 스타일의 형성은 대상의 의미와 용도를 파괴하고 변형하는 브리콜라주에 관련된 외모와 행동이며 집단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대상을 조작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딕 헵디지(Dick Hebdige)는 하위문화 스타일의 전복적인 힘과 지배적인 질서에 의한 채택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켰다. 그는 하위문화의 복식 행동을

게릴라전의 기호의 한 형태로 보고 사회 질서에 대한 상징적인 위반으로 규정하였다.<sup>20)</sup> 그러나 하위문화 스타일의 저항적인 의미는 궁극적으로 미디어와 패션 업계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면서 지배 문화에 의해 그 전복적인 특성은 제거되고 통합된다.

일반적인 사회 규범에 대한 도전은 외부인들에게는 용기와 신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높은 하위문화적 가치와 중요한 하위문화 자본의 근원이 된다.<sup>21)</sup> 하위문화에서 시작된 트렌드는 주류 문화에 반항을 일으켜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취향, 라이프스타일, 패션, 음악, 구매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펑크 이후의 하위문화는 하위문화적 독창성을 약화시키는 주류 패션으로 상향전과 되어왔는데, 이는 주로 스타일의 반항적인 의미를 사라지게 하거나 일반화하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에 하이패션과 하위문화 스타일은 전례 없이 가까워져, 주류와 비주류, 하이패션과 하위문화스타일의 계층질서가 붕괴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지배문화에의 저항이라는 하위문화 스타일의 기능은 약화되어, 하이패션에 끊임없는 새로움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주류패션의 대안으로 출현한 하위문화 스타일이 주류패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역설적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패션 디자이너들은 이데올로기와 라이프스타일에 뿌리를 두기보다는 의복과 장식에 초점을 맞추어 거리의 요소들을 그들만의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하위문화적이지 않은 독특한 스타일로 창조해낸다.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패션시장에 도입된 하위문화 요소는 하나의 상품이미지 즉,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sup>22)</sup>이 말하는 혼성모방으로 귀착된다. 이러한 하위문화의 상향전과경향은 끊임없는 매체의 관심과 함께 하위문화 스타일 본래의 의도의 근본을 약하게 한다. 즉, 스트리트 스타일이 하이패션에 도입될 때 하위문화로서 처음에 지녔던 저항적

의미는 사라지거나 약화되면서 일반화되고 결국 하이패션을 지배하는 문화로 통합되며<sup>23)</sup>, 하위문화의 창조성은 미디어와 상업적인 이용을 통해 주류 패션으로 전환되면서 하위문화적 스타일의 파괴적인 잠재성은 상업화되고 하위문화적 형태는 상품화된다.<sup>24)</sup> 하위문화는 기존의 문화에 대항하는 의미로 차별화를 추구하지만, 바로 그러한 차이가 소비를 조장하고 자본을 끌어들이는데 이용되는 것이다. 하위문화 스타일의 충격적 자극은 수십 년간 패션이 추구해온 혁신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으로 이용되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위문화 스타일은 급속히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된다.

많은 주류문화 패션이 하위문화의 복식 스타일에 영감을 받는다. 예를 들어, 타이 힐피거(Tommy Hilfiger)는 199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힙합과 랩 하위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스포츠웨어 라인을 전개했으며, 안나 수이(Anna Sui)는 1960년대의 북미 지역 히피 하위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로맨틱한 보헤미안 컬렉션 라인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알렉산더 맥퀸과 존 갈리아노는 고스 하위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쿠튀르 컬렉션을 전개한 바 있다. 이상에서 하위문화 스타일이 하이패션으로 흡수될 때는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미지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의가 상실된 기표만을 차용한 것이다. 하이패션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미의식에서 이탈한 하위문화 스타일의 미적 특성은 패션에 새로운 미의식을 제공함으로써 패션 디자인의 다양화와 세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sup>25)</sup>

종종 하위문화 스타일은 하위문화로 시작하여 같은 하위문화 내에서 제한적으로 생산되다가 패션산업으로 확산되고 나중에는 하이패션에 의해 채택되곤 한다. 새로운 하위문화는 패션산업에 의해 채택되어 새로운 패션과 트렌드를 만들어낸다.

### 3. 주류문화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

고스 하위문화의 역사는 두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펑크시대의 고스의 출현에 이은 1980년대의 절정기와 1990년대 중반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주류에서의 고스의 표현이 섬세해지고 영구적으로 정착한 스타일로 발전한 때이다.<sup>26)</sup>

고스 하위문화에서는 스타일이 그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고스는 1980년대부터 다양하게 확산(diffuse)되었지만 완화(defuse)되지는 않았으며<sup>27)</sup>, 고스 스타일은 21세기가 되어서도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영국에서 고딕을 주제로 한 술집들은 여전히 인기가 있고, 윌키 콜린스(Wilkie Collins)의 미스터리 소설 *The Woman in White*<sup>28)</sup>는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로 제작되어 개봉되었다. 뮤지션 닉 케이크(Nick Cave)는 인터뷰에서 고딕 장르를 핵전쟁 후에 살아남을 두 종(種) 중 하나로 꼽으면서 그 오랜 지속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sup>29)</sup>

언더그라운드 고딕 스타일은 오랫동안 주류 매체와 문화에 영향을 끼쳐왔는데, 매스미디어나 공포 영화에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으로 재현되곤 한다. 고스의 죽음, 범죄, 광기, 도착, 강박적 욕망, 초자연적인 것 등 인간 삶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집착은 때로 세기말적 현상(fin de siècle)이라 불린다. 어떤 비평가들은 1790년대, 1890년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0년에 나타난 일련의 고딕적 행태들에 주목하였다. 데이비드 펀터(David Punter)는 고딕을 마치 “새로운 장을 넘기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피하게 과거의 그림자를 불러내는 것이라도 되는 양, 세기의 전환과 아주 특별한 관련이 있다”<sup>30)</sup>고 말했다. 다시 말해, 현재 고딕이 상업적인 패션과 연예오락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세기말의 지속적인 공허를 나타내는 징후이며, 1990년대 후반의 밀레니얼 고딕(millennial gothic)<sup>31)</sup>은 세기말의 문화적 불안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류문화에서 고딕에 강한 관심을 보인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작은

규모의 독립영화에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화가 고딕 모티브를 사용하였다. 20세기 말에 고딕의 영향은 텔레비전, 만화, 테마파크의 놀이기구, 비디오 게임과 인터넷을 아우르는 모든 종류의 미디어에서 가시화되었다. 고스 하위문화는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하여 오늘날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고딕은 대중음악과 라이프스타일의 하위장르로서의 비주얼 룩으로 변형되었다. 매릴린 맨슨(Marilyn Manson)의 고딕 색채 농후한 앨범들은 전 세계에서 수백만 장 이상이 팔려 나갔고, 양들의 침묵(Silence of the Lambs, 1990), 팀 버튼(Tim Burton)의 비틀쥬스(Beetlejuice, 1988)와 가위손(Edward Scissorhands, 1990), 드라큘라(Bram Stoker's Dracula, 1992), 뱀파이어와의 인터뷰(Interview With the Vampire, 1994)와 같은 영화들이 천문학적인 관객몰이에 성공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한니발 렉터(Hannibal Lecter), 프레디 크루거(Freddy Krueger)와 같은 사악한 악한들은 연예오락계의 반(反)영웅이 되었다.



<그림 1> Twilight (2008)  
- <http://www.imdb.com>

20세기 말에 고딕은 주류 연예오락물의 소재로 입지를 굳혔다. 특히, 가장(假裝)되고 대중매체화된 소비사회의 현실에 대한 반항을 표현하기 위해

고스 스타일이 사용된 영화 매트릭스(The Matrix, 1999)는 주류영화에서의 고스의 반문화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딕을 십대들의 세계로 옮겨놓은 TV 시리즈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Buffy the Vampire Slayer, 1997-2003)는 틴에이지의 트라우마와 청소년기의 고뇌를 퇴폐, 일탈, 죽음 등의 고딕 요소로 포장한 시리즈로 과거 TV 시리즈들에 비해 유례없이 큰 비평적·학문적 관심을 받았다. 상업적 파급력이 대단했던 이 시리즈는 젊은 세대 사이에 고스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이후 십대와 이십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딕을 재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은 고수의 사업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스테프니 메이어(Stephenie Meyer)의 연작 동명소설을 영화화 한 The Twilight Saga 시리즈 영화 등 뱀파이어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잇따른 흥행을 얻고 있다.<그림 1><sup>32)</sup>

이렇듯 주류 문화산업에서 증가하는 고스의 구매력을 인식하였고, 패션에서의 고딕 테마는 대중문화와 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주류에서의 고스 하위문화의 채택은 켈빈 클라인(Calvin Klein)과 리바이스(Levi's) 광고와 주요 화장품 광고에서도 나타났다. 샤넬같은 화장품 회사에서는 '뱀프(Vamp)' 네일 폴리쉬와 립스틱을 출시한 바 있다.

최근 세계적인 고딕 문학의 확산과 더불어 다국적 미디어 거대기업의 글로벌 마켓을 겨냥한 '브랜드 고딕(brand Gothic)'은 수익성 좋은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sup>33)</sup> 오늘날 고딕으로 규정되는 것은 점차 그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기원에서 분리되어,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고딕의 형태와 이익이 보장되는 글로벌 비즈니스로서의 고딕으로 변모하였다.<sup>34)</sup> 고딕은 이제 주류시장과 틈새시장의 구분을 막론하고 상업화되어, 영화와 소설에 국한되지 않고 패션, 가구, 컴퓨터 게임, 청년문화, 그리고 광고에까지 등장한다. 고딕은 대중적 매력은 지금의 경제적 환경을 만나면서 거대산업의 외양까지 갖추게 된 것이다.

### Ⅲ. 하이패션에 나타난 고딕 시크(Gothic chic)

1990년대 중반, 문화평론가들은 매릴린 맨슨으로부터 가비지(Garbage)에 이르는 고스의 영향을 받은 밴드들의 큰 인기와 그 추종자들 뿐 아니라 오프 쿠튀르에서의 고딕의 영향을 주목하며 ‘고딕의 부활’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고딕 스타일의 부활은 1990년대 주류패션과 하위문화에서 모두 출현하였다. 고스 하위문화는 고딕 문화의 전통에서 기인한 정체성에 대한 연극적 표현 때문에 외부의 논평가들에 의해 외면되어 왔다. 그러나 오프 쿠튀르와 패션 언론들은 고스를 야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 비난하면서도 바로 이러한 연극적인 부자연스러움의 가능성과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고딕 패션을 차용하게 되었다.<sup>35)</sup> 발레리 스틸(Valerie Steele)<sup>36)</sup>은 고딕 룩은 현대 하이패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스타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패션에서 복식 자체 또는 패션 사진이나 컬렉션에서의 표현이 고딕에의 연상 작용을 이끄는 패션을 지칭하는데 ‘고딕 시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고딕 스타일’은 양식의 측면에서, ‘고딕 패션’은 유행의 관점에서, 문학, 미술, 건축 등에서 자주 사용될 뿐 아니라 복식사에 있어 중세복식의 특정한 스타일 및 패션을 일컫는데 주로 사용되므로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패션계에서 특히 어떤 주제가 하이패션화 되는 양상을 표현할 때 ‘시크’라는 용어를 애용함에 주목하여 ‘고딕 시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패션 속의 고딕주의는 1970년대 후반 등장한 직후 곧바로 주류문화 안으로 편입되었던 펑크와 그 전개가 조금 다르다. 펑크가 주류패션으로 영업된 것은 거리에서 탄생된 후 일 년 반도 지나지 않는 시점이었다. 펑크 이후 최신 유행의 흐름이 국제적으로 노출되는 양상과 빈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가속화되었고, 이 같은 현상에는 유행을

찾아내는 전문 직업인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힘도 컸다. 이제는 일단 거리에 새로운 룩이 보이면,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와는 동떨어지게도, 고스 룩은 패션계에 모습을 드러내기 거의 20년 전부터 확고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다.<sup>37)</sup> 하위문화의 역사에서 본다면 이것은 긴 시간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나타난 고딕 시크는 관습을 스타일리시하게 파괴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지향적이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구성되어 우울한 고스를 디자이너의 고딕 시크로 변모시켰다. 1990년대 말이 되자 알렉산더 맥퀸이나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같은 디자이너들은 고딕 이미지를 디자인에 접목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는 고스 하위문화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은 듯한 작품도 있고, 맥퀸과 슈엘리 디자이너인 션 리안(Shaun Leane)의 작업과 같이 고딕 담론에 대한 지적인 고찰을 통해 탄생한 작품들도 있다.

일부 패션 저널리스트들은 어떠한 룩을 단순히 검정색이라는 이유로 고딕으로 묘사하곤 하는데, 이는 심각한 오도이다. 물론 검정색은 전형적인 고딕 컬러로 고스 스타일은 네오 빅토리아의 검정색에서부터 검정색 네일 폴리쉬까지 검정색을 중심으로 하지만, 모든 검정색 복식이 고딕은 아니며 고딕 패션이 항상 검정색을 띄는 것은 아니다. 고딕화된 패션, 즉 고딕 시크는 복식 자체 또는 패션 사진이나 컬렉션에서의 표현이 고딕에의 연상 작용을 이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고딕 감성은 복식 자체에 표현되지만 스타일링에 의해 구현되기도 한다.

장르로서 고딕은 죽음, 파괴, 쇠망, 감금, 공포와 에로틱함이라는 주제로 특징지어지며, 고딕 패션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미를 거부하고 무시무시하고, 극단적이고, 인공적이며, 종종 성적으로 페티시적인 미를 추구한다. 고스 하위문화는 죽음과 쇠락을 과도하게 미화하고 에로틱하게 표



현하므로 고딕 패션은 병적이고 반사회적이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비추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하이패션에 표현된 고딕 시크를 2장에서 고찰한 고스 하위문화 및 주류 문화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하이패션에서의 그 영향력과 가시성에 따라 뱀파이어리즘, 메멘토 모리, 그리고 성적 페티시로 분류하였다.

### 1. 뱀파이어리즘(Vampirism)

고스 하위문화의 고유한 특징인 뱀파이어리즘<sup>38)</sup>은 하이패션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이며, 특히 패션 화보에서 다루어져 주류 패션에 영향을 미친다. 패션 사진은 종종 현실 세계와 무관하다는 비난을 받으나, 패션 사진은 시대의 거울이며 그것이 포착하는 순간을 반영하면서 항상 새로움의 탁월한 지표가 되어왔다.<sup>39)</sup> 특히 고딕 이미지를 창조하는 패션 포토그래퍼와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은 고딕 패션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Vogue나 Elle 등 주류 패션잡지들은 고딕 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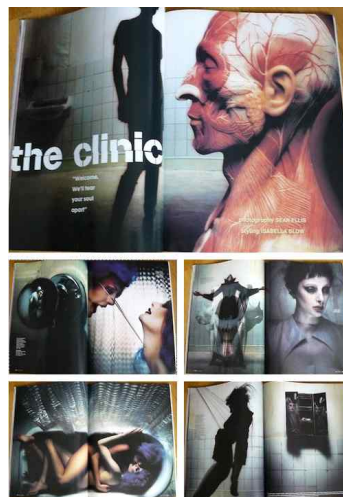
마를 탐구하는데 느린 편이나, Dazed & Confused, i-D, The Face와 같은 스트리트 스타일에 관심이 있는 젊은 독자를 겨냥한 간행물들에는 고딕 패션 관련 화보들이 이미 1980년대 중반 경 등장하였다.

1996년 사진작가 마티나 이바노우(Martina Ivanow)와 스타일리스트 맥키(Alister Mackie)는 Dazed & Confused지에 공동 작업으로 'Neverland'라는 화보를 실었다.<그림 2><sup>40)</sup> 여기서 모델의 다리는 두꺼운 가죽 벨트로 묶이고, 나오미 필머(Naomi Filmer)가 디자인 한 금과 은으로 된 뱀파이어 송곳니 장식을 하고 후세인 살라얀의 아방가르드 한 디자인을 입고 있다. 드라쿨라나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낭만주의 시대의 고딕적 괴물 신화는 과학문명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알레고리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몸이 과학, 기술, 의학 등에 의해 점차 왜곡되고, 부패되고, 돌연변이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감의 표현인 것이다.<sup>41)</sup>

사진작가 션 앨리스와 스타일리스트 이사벨라 블로우가 작업한 유명한 고딕 패션 화보인 'The



<그림 2> 'Neverland'  
- <http://forums.thefashionspot.com>



<그림 3> 'The Clinic: Welcome.  
We'll tear your soul apart.'  
- *The Face*, 1997



<그림 4> Shaun Leane, silver mouthpiece for Alexander McQueen 1997 S/S  
- *Fashion at the edge*, p. 233

Clinic: Welcome. We'll tear your soul apart.'는 The Face 1997년 3월호에 실렸는데(그림 3)<sup>42)</sup>, 이는 으스스한 정신병원처럼 보이는 화장실과 타일 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사진 시리즈는 뱀파이어를 닮은 모델을 근육과 동물의 두개골을 드러내는 해부학적 이미지와 겹쳐 보여주었다. 또한 색이 바란 하얀 타일과 더러운 화장실을 배경으로 치료용인지 고문용인지가 불분명한 수술도구와 해부학적 인체모형을 암시하는 소도구들을 통해 비참하고 두려움에 떠는 몸에 대한 어둡고 반(反)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그려내었다. 이 화보의 한 사진에서 모델은 액세서리 디자이너 셀 리안이 알렉산더 맥퀸을 위해 디자인 한, 마치 뱀파이어가 희생자의 목을 찌르려는 듯이 보이는 얼굴 장식(그림 4)<sup>43)</sup>을 하고 있다. 두 모델의 얼굴은 화면 가운데에서 대각선으로 밀착되었는데, 한 모델의 머리는 황홀감으로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다른 모델은 상대방의 목에 가늘고 기다란 은으로 된 스파이크를 겨누고 있다. 또 한 사진에서는 콧대 가르송의 'Distortion Dress'를 입은 왜곡된 실루엣의 모델이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전한다. 이 사진은 에로티시즘에 가학피학성 성애(sado-masochism)의 쾌락의 색채를 더한 고딕 이미지를 조망한다. 이는 여성의 환상과 공포가 탐구되고 노출되는 장으로서의 패션사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레베카 아놀드(Rebecca Arnold)<sup>44)</sup>는 이러한 이미

지는 완벽한 몸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러한 이미지의 구성 및 통제와 문화에 수용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고딕 패션 화보에서는 알렉산더 맥퀸이나 후세인 살라얀의 디자인이 자주 사용되며 이는 고딕 스타일의 새롭고 극단적인 감각을 제시한다.

1998년 The Face 3월호에는 5명의 여자가 고딕 풍 복식을 입고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된 'Pure Smirnoff-The difference is clear'라는 제목의 스미르노프(Smirnoff) 보드카의 광고가 실렸다.(그림 5)<sup>45)</sup> 광고가 암시하는 바는 스미르노프를 마신 여자는 진정한 뱀파이어인데 비해 다른 네 명의 여자들은 고스를 흉내 내는데 그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포영화에서 뱀파이어는 거울에 상(像)이 비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주류문화에서의 고스 하위문화의 존재는 과장되고 진부하며 세련되지 못하게 그려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의 전제하에 이 광고는 진정한 스미르노프는 섹시하고 위험한데 비해 다른 경쟁제품은 모방품일 뿐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sup>46)</sup> 이 광고는 1990년대 후반이 아니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1998년에 The Face의 독자들은 이전 몇 년 동안의 수많은 패션 헤드라인을 통해 고딕 스타일이 패션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광고는 네 명의 비



<그림 5> 'Pure Smirnoff - The difference is clear'  
- The Face, 1998

(比) 스미르노프 여자들은 올드 스쿨(old school) 고스인데 비해, 강조된 한 여자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이는 스타일리시한 여자임을 암시한다.<sup>47)</sup> 말하자면, 스미르노프를 마시면 당신은 우울한 고스에서 시크한 고스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광고의 강조점은 'The difference is clear'이라는 제목에도 나타났듯이 진짜 뱀파이어와 그 뱀파이어를 동경하는 자들 사이의 차이를 제시하는 것이다.

패션 컬렉션을 살펴보면 리카르도 티시(Riccardo Tisci)는 2005 F/W 컬렉션에서 뱀파이어 고스의 어두운 로맨틱 룩을 십자가 배경을 이용하여 표현하였으며, 같은 해 가레스 퓨(Gareth Pugh)는 악마적이고 연극적인 실루엣과 극적이고 고딕적인 검정색의 사용을 통해 뱀파이어리즘을 재현했다. <그림 6><sup>48)</sup> 고스 하위문화의 주요한 아이콘인 뱀파이어는 직·간접적으로 하이패션에 등장하여 뱀파이어리즘을 통해 고딕 시크를 구현하고 있다.

## 2.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중세인들은 몸이 썩어 사라진다고 믿기보다는

“몸과 영혼이 세계의 종말이 올 때까지 잠을 잔다.”<sup>49)</sup>고 믿었다. 중세 미술에 자주 등장하는 ‘죽음의 무도(Danse Macabre)’ 모티브는 망자(亡者)들이 자정이 되면 무덤에서 나와 춤을 춘다는 민간신앙에서 비롯되었다. 죽음의 무도는 중세 후기의 죽음의 보편성에 대한 알레고리로, 이승에서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생각이 죽음의 무도라는 모티브로 이어졌다.<sup>50)</sup> 죽음의 무도와 관련된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가 있다. 이어지는 고대 로마의 영광과 승리에 도취되는 것을 피해야한다는 가르침에서 유래된 것으로, 속세를 초월하여 사후의 영혼을 생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런 주제는 장례 예술이나 건축에 자주 나타난다.<sup>51)</sup>

1990년대의 특정 성향의 패션 디자인, 사진,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은 죽음에 대한 뚜렷한 연관성을 보인다. 잡지와 런웨이에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뼈를 사용한 죽음의 전통적 시각적 상징을 끌어들었다. 쥘리 디자이너인 셀리안은 몇 년간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을 위해



<그림 6> Gareth Pugh,  
2006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7> Alexander McQueen, 1998 S/S  
- *Fashion at the edge*,  
p. 224



<그림 8> Christian Dior Couture,  
2006 S/S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9〉 Viktor & Rolf,  
2001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0〉 Undercover, 2006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그림 11〉 Alexander McQueen, 2001 F/W  
- <http://www.firstviewkorea.com>

은 소재의 갈비뼈 모양의 코르셋, 독수리 해골 모양 장신구, 새 발톱으로 만든 귀걸이 등 죽음을 상징하는 액세서리를 디자인 하여 고딕 이미지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알렉산더 맥퀸은 1998년 S/S 컬렉션에서 검정색 드레스 위에 선 리안이 실제 사람의 해골에서 본 때 디자인 한 갈비뼈 모양의 알루미늄 코르셋을 제시하였다.〈그림 7〉<sup>52)</sup> 이 액세서리는 충격적인 이미지로 일상복의 범주에 도전하였다. 1990년대 초반 패션 사진에 등장하는 디자인들은 점차 난해하고 변태적인 고스 액세서리만 제거한다면 주류 패션의 소비자들도 무리 없이 착용할 수 있어 보인다.

패션에서의 고딕 이미지는 1990년대를 거쳐 변화하였다. 1990년대의 디자이너들은 의도적으로 고딕을 디자인에 적용시켰는데, 특히 알렉산더 맥퀸은 The Birds, The Hunger and The Shining 컬렉션에서와 같이 종종 로봇인형, 인체해부와 인공보철물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 알렉산더 맥퀸이 모델의 몸에 맞춰 형태를 뜯 가죽 보철 코르셋에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을 연상시키는 흉터와 바느질자국이 있다. 이 컬렉션에서 제시된 신체는

인공적이면서도 유기체적이며, 보호용 외피이면서도 그 용도와는 모순된 훼손의 표식을 지니고 있다. 또한 컬렉션의 조각상 같은 모델들은 렉서리한 쿠튀르 드레스를 걸치고 동물의 두개골이나 찢어진 가죽으로 장식되어 죽음과 위협을 연상케 하였다. 패션잡지에서도 잔인한 분위기는 이어져 모델을 천하무적의 초인보다는 나약한 인간으로 그리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고딕 패션에서는 죽음과 쇠망이 미화되고 예로틱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연극적인 패션의 거장 존 갈리아노도 종종 고딕 테마를 택해 왔다. 2006년 S/S 디올(Christian Dior) 오트 쿠튀르 컬렉션에서 그는 유령 같은 메이크업, 붉은 색 드레스, 거대한 십자가를 등장시키는 등, 죽음을 해골로 표현하는 죽음의 무도라는 중세적인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 표현했다.〈그림 8〉<sup>53)</sup>

빅토리아 시대의 상복 또한 죽음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는 2001 F/W Black hole 컬렉션에서 검은 베일과 상복을 연상시키는 드레스를 통해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감성을 창의적인 감각으로 변화시

켰다.<그림 9><sup>54)</sup> 나아가 시체의 이미지로 더욱 노골적으로 죽음을 재현한 디자이너도 있는데, 준 타카하시(Jun Takahashi)는 언더커버(Undercover) 2006년 컬렉션에서 모델을 마치 관에서 뛰쳐나온 시체와 같이 재킷을 봉대로 감싸고 너털너털한 천 조각으로 얼굴까지 가린 채 머리에서 발끝까지 미이라의 수의처럼 감아내려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내었다.<그림 10><sup>55)</sup>

고딕의 시각적 도상 중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해골의 이미지는 특히 2001년부터 남성복에서 눈에 띈다. 영향력 있는 트렌드세터로는 콧대 가르송과 알렉산더 맥퀸을 꼽을 수 있으며<그림 11><sup>56)</sup>,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스키(Banksy)는 웃고 있는 두개골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해골 룩은 도시의 젊은 소비자들을 겨냥한 스트리트웨어에 빠르게 채택되었다. 특히 두개골은 후드 티셔츠, 티셔츠, 야구모자와 벨트의 버클 등에 등장하였다. 2007년 경 해골의 이미지는 애견용 의복에 등장할 정도로 널리 확산되었다. 아티스트 대미언 허스트(Damien Hirst)는 수백만 달러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두개골을 제작하여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죽음을 주제로 한 고딕 패션은 중저가 대중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최신 유행 패션 상품을 구비한 영국의 전국적인 체인 매장 톱숍(Top Shop)에서 해적표시모양의 팔찌들이 판매되었다.

### 3. 성적 페티시(Sexual fetish)

1970년대 중반 핑크에 의해 페티시즘은 하위문화의 성적 아젠다의 정수가 되었다. 신성함과 거룩함의 구현으로서의 사물에 대한 숭배를 의미하는 종교적 의미의 페티시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페티시즘은 종종 성적 일탈을 일컫는다.

가죽, 고무, 킬힐, 타투, 바디 피어싱 등 페티시즘의 모든 용품들이 점차 주류 패션으로 통합되고 있다. 하위문화에서의 페티시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최근 복식에서의 섹슈얼리티

수용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페티시적인 주제의 유희적인 사용이 점차 패션에 용화되었다. 시즌 컬렉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페티시 스타일은 반복적으로 또 점점 더 강조되어 왔다. 페티시즘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성적 도착이나 성적 하위문화에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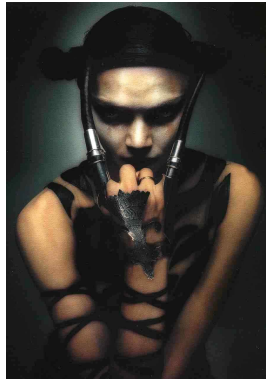
패션의 측면에서 보면 고스 패션은 페티시 스타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PVC와 고무 소재의 스커트, 상의, 코르셋, 도그 칼라(dog collar) 등은 남녀를 막론하고 고스 스타일의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었다. 초기 고스 밴드가 페티시 패션을 차용한 것은 핑크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는 과장된 페티시 복식과 이미지가 고스 스타일의 기본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sup>57)</sup> 고스는 페티시즘에 대한 핑크의 관심을 이어서 더 드레시하고 화려한 스타일로 해석하였다.

고딕 패션은 데카당스와 성도착을 강조하는데, 고스의 성적 페티시즘은 일반적으로 본디지(bondage), 성적 지배, 가학성과 피학성 등의 성적 취향으로 간주된다. 성적 페티시로 표현되는 고딕 시크는 건강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메시지에 대한 저항으로 의도적으로 충격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로티시즘과 암울한 요소의 결합은 보는 이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온다. 섹시한 페티시 고스 스타일은 권력(power)과 공포와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성적으로 적극적인 스타일은 '핑크색의 부드러운(pink and fluffy)' 여성성의 관습적인 기표가 아닌, '파워풀(powerful)'하고 '무서운(scary)' 것으로 간주된다.<sup>58)</sup> 남성을 당황하게하고 남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한 목적으로 남성 응시를 유도하며, 공격적 여성성으로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주도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검정색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걸쳐 많은 서구 유럽의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색이 되었다. 아제딘 알라리아(Azzedine Alaïa), 클로드 몬타나(Claude



〈그림 12〉 Thierry Mugler,  
1995  
- *The black dress*



〈그림 13〉 Fetish Goth  
- *Gothic: Dark glamour*,  
p. 77



〈그림 14〉 Alexander  
McQueen, 2007 F/W  
- *Alexander McQueen*,  
p. 79



〈그림 15〉 Dolce &  
Gabbana, 2007 S/S  
- <http://www.firstviewkorea.com>

Montana),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는 모두 검정색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들은 페티시적인 하위문화에 연관이 있는 검정색 가죽이나 PVC를 사용하였다. 수십 년간 페티시 패션을 탐구한 뮈글러는 1995년 컬렉션에서 성적으로 지배적인 여성인 도미나트릭스(dominatrix)의 이미지에 근거한 네크 코르셋과 타이트 레이스(tight-laced)의 검정색 가죽 코르셋을 변태적이고 에로틱한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였다.<sup>59)</sup>〈그림 12〉<sup>60)</sup>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은 특히 검정색의 일탈과 타락, 성도착을 표현하는 힘을 인식하였다. 그들의 디자인에서 검정색은 드라마틱한 하이패션의 검정인 동시에 페티시적이고 악마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반항적인 고스 안티패션의 검정색으로 사용된다. 알렉산더 맥퀸의 1997 F/W 컬렉션 *It's a Jungle out There*에서는 새라 하마니(Sarah Harmanee)가 피임도구를 팔꿈치 또는 손가락 등 예상치 못할 신체부위에 착용시켜 검정색 가죽 끈으로 교차하여 묶어 고스의 하위문화적 감성과 패셔너블한 가학피학성 변태성욕(sado-masochism)을 결합시키고, 섬세하지만 퇴폐적인 형태의 미를 표현하였다.<sup>61)</sup> 〈그림 13〉<sup>62)</sup>, 〈그림 14〉<sup>63)</sup>에서는

가죽 본디지 바디스, 마스크와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부츠로 도미나트릭스의 주제를 과장되게 표현하였다.

이 밖에도 컬렉션에서 고스적인 페티시 주제를 종종 사용하는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는 2007년 컬렉션에서 검정색 코르셋과 레이스를 사용하여 여성의 성적 지배욕을 형상화 한 앙상블을 선보였으며〈그림 15〉<sup>64)</sup>, 2001년 구찌(Gucci) 컬렉션에서는 고스의 페티시 감성이 상업적으로 표현되었는데, 검정색 시스루(see-through) 소재와 코르셋을 통해 성적매력을 강조하면서도 음울한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패션 사진작가 션 엘리스나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의 작업에서는 여체의 파워풀한 에로티시즘은 관람자를 위협하듯이 폭력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고스의 잔혹한 섹슈얼리티에 관한 이들의 작업은 몸의 취약성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시각적이고 물리적으로 드러내며 성적 욕망의 어두운 면을 역설한다. 또한 끊임없는 감시 하에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서구문화의 집착적인 관음증을 강조한다.

〈표 1〉은 하이패션에 표현된 고딕 시크의 주제별 표현 특징과 미적 특성을 정리한 것으로, 각각

〈표 1〉 고딕 시크의 표현 특징과 미적 특성

구분	표현 특징	미적 특성
뱀파이어리즘	뱀파이어 메이크업, 송곳니 및 스파이크 장식, 십자가 도상	공포감, 우울함, 가학피학성 성애, 에로티시즘, 악마성
메멘토 모리	두개골·해골·인체 해부·시체 이미지, 상복, 십자가 도상	죽음의 공포, 죽음의 희화화, 인간의 나약함
성적 페티시	검정색 PVC·고무·가죽 소재, 타이트레이싱 및 코르셋, 도그 칼라, 본디지, 마스크, 롱부츠, 킬힐	가학피학성 성애, 성도착, 공격적 여성성, 폭력적 에로티시즘

의 주제에 있어 표현의 양상과 호소하는 미적 감성은 상호배제적으로 구분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공유되고 교차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검정색을 비롯한 어두운 색상의 사용과 공포감, 에로티시즘, 공격성의 표현이라는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고스의 주된 시기는 1980년대이지만, 고스는 1990년대를 거쳐서 21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지속되는 하위문화이다. 고스의 과거와 현재의 유희적인 혼성모방이라는 절충주의적 측면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구성원을 끌어들이고 있다. 고스 하위문화에서 스타일은 공유하는 정체성 또는 저항의 수단 뿐 아니라 미적인 전형 또는 상상의 형태로서 고스를 정의하는 유용한 수단이자 표현 매체이다.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소개되어 차용된 고스 패션은 이념과 라이프스타일보다는 의복과 장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딕 패션은 18세기 고딕 공포소설에서의 재현에서 뱀파이어 소설, 영화, 미술에서의 현대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의 담론에서 발전된 시각적 언어를 포함한다. 패션에서 고딕 시크는 맥퀸 등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화보와 공포영화의 이미지 등 사진에서 가장 뚜렷하게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하이패션에 표현된 고딕 시크를 뱀파이어리즘, 메멘토 모리,

그리고 성적 페티시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1990년대에 디자이너가 주도한 고스 스타일은 스타일의 측면에서 고스의 전통을 파괴하고 고스를 피상적으로 묘사하는 모순적인 경향을 수반하는 고딕 시크로 변형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서구 소비사회의 파괴적인 과도함에 대한 공포를 표현하지만 이러한 공포를 미화하면서 이를 소비의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엘리자베스 윌슨(Elizabeth Wilson)<sup>65)</sup>의 설명과 같이, 하이패션의 고딕 시크에서의 소비주의가 감추고자 하는 빈곤과 퇴락은 디자인의 주제로, 이는 현대 사회의 암울함에 대한 반응인 동시에 불가피하게 소비의 대상이 된다. 패션계에서 고스 스타일은 고딕 이미지의 영속적인 영향력으로 끊임없이 부활되고 있으며 고스의 오랜 지속성은 죽음에 대한 스타일리스한 상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패션은 더 이상 몸의 현실과 서구 자본주의 문화의 냉혹함을 이상화하는 완벽한 이미지만을 생산하지 않는다. 패션은 이제 변화하는 도덕의 개념을 조명하면서 죽음과 쇠락, 불확실성과 동경을 아우른다.

#### 참고문헌

- 1) Polhemus, T. (1994), *Street style: From sidewalk to catwalk*, New York: Thames and Hudson, pp. 97-99.
- 2) Gilbey, R. (1997. 5), "Doom generation: The new tales from the dark side", *The Face*, p. 122.
- 3) 패션에 나타난 고딕 스타일에 대한 첫 번째 전시로, 미로, 페허가 된 성, 실험실과 같은 고딕 배경에 Alexander McQueen, Ann Demeulemeester, Boudicca, Comme des Garçons, John Galiano for Christian Dior, Jean Paul Gaultier, Hussein Chalayan, Kei Kagami, Gareth Pugh, Ricardo Tisci for Givenchy, Thierry Mugler,

- Rick Owens, Jun Takahashi of Undercover 등의 작품을 포함한 총 75벌의 의상이 전시되었다.
- 4) 김고운, 장동림 (2006),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고스 이미지에 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6(2), pp. 77-91.
  - 김선경, 최희자, 명광주 (2011),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고스메이크업 연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12(1), pp. 85-99.
  - 5) 안현주 (2009), 국내 패션에 나타난 고스 스타일 특성, *복식문화연구*, 17(4), pp. 626-639.
  - 6) 최정화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스 이미지의 미적 특성, *한국여류산업학회지*, 7(2), pp. 153-161.
  - 7) 이유허 (2011), 오피스 고스 패션에 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3(4), pp. 127-138.
  - 8) Steele, V., & Park, J. (2008), *Gothic: Dark glamou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 3.
  - 9) Voltaire (2004), *What is goth?*, Boston: Weiser Books, pp. 10-11.
  - 10) Goodlad, L., & Bibby, M. eds. (2007), *Goth: Undead subculture*, Durham·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 2.
  - 11) Steele, V., & Park, J., *op. cit.*, p. 37.
  - 12) *Ibid.*, p. 105.
  - 13) Goodlad, L., & Bibby, M., *op. cit.*, p. 15.
  - 14) McRobbie, A. (1994), *Postmodern and popular culture*, London: Routledge, pp. 136-154.
  - 15) Hodkinson, P. (2002), *Goth: Identity, style and subculture*, Oxford: Berg, p. 37.
  - 16) Goodlad, L., & Bibby, M., *op. cit.*, p. 33.
  - 17) Gelder K., & Thornton, S. (1997), *The subcultures reader*, London·New York: Routledge, pp. 1-5.
  - 18) Hebdige, D. (1995),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New York: Routledge, p. 8.
  - 19) 임은혁 (2003), 1990년대 하위문화 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3(3), p. 15.
  - 20) Hebdige, D. (1979),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Methuen, p. 19.
  - 21) Brill, D. (2008), *Goth culture: Gender, sexuality and style*, Oxford·New York: Berg, p. 53.
  - 22) Jameson, F. (1991), *Postmodernism or, the cultural logic of last capitalism*, London·New York: Verso, pp. 16-25.
  - 23) Evans, C. (1997), Dreams that only money can buy or, the shy tribe in flight from discourse, *Fashion Theory*, 1(2), p. 169.
  - 24) Muggleton, D. (2000), *Inside subculture: The post-modern meaning of style*, New York·Oxford: Berg, pp. 131-134.
  - 25) 임은혁 (2003), 21세기 전환기 하이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스타일, *복식* 53(2), p. 14.
  - 26) Goodlad, L., & Bibby, M., *op. cit.*, pp. 7-8.
  - 27) 헵디지는 하위문화적 형태가 원래의 문맥에서 이탈되면 그 하위문화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Hebdige, D. (1979), *op. cit.*, p. 28.
  - 28) 1859년 쓰여진 서간체(書簡體) 소설로 1860년까지 연재된 최초의 미스터리 소설.
  - 29) 내(耐)방사능기능을 가진 바퀴벌레와 고스를 그 두 종의 생물로 꼽았다는 뜻, *New Musical Express* (1996. 1. 27), Barratt, C. (2005), Book review: Fashioning Gothic bodies by Catherine Spooner, *Fashion Theory*, 9(3), p. 380.
  - 30) Punter, D. ed. (1999), *Spectral readings: Towards a Gothic geography*,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p. 2.
  - 31) Steele, V., & Park, J., *op. cit.*, p. 46.
  - 32) 자료검색일 2012. 8. 5, [http://www.imdb.com/title/tt1099212/?ref\\_=fn\\_al\\_tt\\_1](http://www.imdb.com/title/tt1099212/?ref_=fn_al_tt_1)
  - 33) Byron, G. (2012), *Global Gothic: A new companion to the Gothic*, Punter, D. ed. Oxford: Wiley-Blackwell, p. 370.
  - 34) *Ibid.*, p. 371.
  - 35) Spooner, C. (2004), *Fashioning Gothic bodies*,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 20.
  - 36) Steele, V., & Park, J., *op. cit.*, p. 3.
  - 37) Spooner, C., *op. cit.*, pp. 133-134.
  - 38) Baddeley, G. (2006), *Goth chic: A connoisseur's guide to dark culture*, London: Plexus, p. 241.
  - 39) Vogue Editors (2009), *Extreme beauty in Vogue*, Milano: Skira.
  - 40) 자료검색일 2012. 6. 23, <http://forums.thefashionspot.com/f71/martina-hoogland-ivanow-photographer-35231-2.html>
  - 41) 홍덕선, 박규현 (2009), *몸과 문화*,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p. 331.
  - 42) *The Face* (1997. 3)
  - 43) Evans, C. (2005), *Fashion at the edge. Spectacle, modernity and deadliness*, New Haven·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 233.
  - 44) Rebecca, A. (2001), *Fashion, desire and anxiety*,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p. 87.
  - 45) *The Face* (1998. 3)
  - 46) Goodlad, L., & Bibby, M., *op. cit.*, p. 143.
  - 47) *Ibid.*, pp. 144-145.
  - 48) 자료검색일 2012. 7. 13,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12&City=CD007&Event=EV001&Designer=1288>
  - 49) 진중권 (2005), *춤추는 죽음 1*, 서울: 세종서적, p. 25.
  - 50) 홍덕선, 박규현, *op. cit.*, pp. 250-252.
  - 51) *Ibid.*, p. 254.
  - 52) Evans, C. *op. cit.*, p. 224.
  - 53) 자료검색일 2012. 7. 13,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11&City=CD007&Event=EV003&Designer=442>
  - 54) 자료검색일 2012. 7. 13,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02&City=CD007&Event=EV001&Designer=499>
  - 55) 자료검색일 2012. 7. 15,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1>



- 2&City=CD007&Event=EV001&Designer=494
- 56) 자료검색일 2012. 6. 20,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02&City=CD007&Event=EV001&Designer=1166>
- 57) Hodkinson, P. (2007), Gothic music and subculture, *The Routledge companion to Gothic*, Spooner, C., & McEvoy, E. eds., Abingdon·New York: Routledge, p. 262.
- 58) Brill, D., *op. cit.*, pp. 63-64.
- 59) Steele, V. (2007), *The black dress*, New York: Collins Design.
- 60) *Ibid.*
- 61) Evans, C. *op. cit.*, p. 224.
- 62) Steele, V., & Park, J., *op. cit.*, p. 77.
- 63) Knox, K. (2010), *Alexander McQueen: A genius of a generation*, London: A&C Black, p. 79.
- 64) 자료검색일 2012. 6. 23,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PhotoImageViewPop.aspx?Season=SS013&City=CD007&Event=EV001&Designer=92>
- 65) Wilson, E., & Ash, J. (1992), *Chic thrills: A fashion reader*, London: Pandora, p. 4.